

강은하-안녕하세요?

자녀의 진로 지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진로 인문학 시간.  
진행에 강은하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대성-네, 안녕하세요?  
지식 캠퍼스에서 만나 뵙게 된

이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은하-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료 준비하셨나요?

이대성-네, 수치인데요.  
10%, 80%

제가 이것을 준비했다기보다는

진로교육과 관계돼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수치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 봤어요.

다시 한 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은하-네.

이대성-10%, 80%, 10%, 80%.

강은하-제가 맞춰야 되는 거죠?

네, 10%, 80%. 음,

대학 진학률이나 취업 성공률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정답입니까?

이대성-그렇습니다. 유사치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10%, 80%, 10%, 80%  
이걸 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현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초·중·고 학부모가 교내외에  
실시하는 자녀 진로교육에 참석하는

최대 비율이 약 10% 정도로  
나오고 있고.

또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채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대학생들의 비율이  
약 80% 정도에 이르고요.

그다음 4년제 대학생 중에  
진로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대학생이 최대 10%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직장인 중에 다른 일을 찾고  
또는 다른 직장에 옮기고자 하는

직장인의 최소 비율이  
약 80% 정도 된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50년 만에 세계 11위의  
경제 국가로 성장한 한국에서

그야말로 국민의 진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은하-기분 좋은 수치는  
아니네요.

이대성-네, 그렇습니다.

강은하-네, 그동안은  
진로를 결정하고

잘 움직이는 것이 개인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대학생이 또 대학에  
들어가기까지도 고민을 하지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이 길이  
내 길인가라고 고민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대성-그렇죠,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진로교육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2015년 12월에 진로교육의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진로 선진국 같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진로교육법이

이미 50~60년 전에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기에 정착해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은하-2015년 12월이면  
굉장히 늦었네요.

그렇지만 늦었을 때  
가장 빠르다고 하니까

이 진로교육을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그렇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사,  
우리 학생은 기본이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주로

추가적으로 진로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서울대의  
요청에 의해서

전국에 계신 우리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시·도교육청의 장학관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일선 교육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일선 교육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한숨을 내쉬면서

“예산입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또 다른 의견으로서는 이 비중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답변인데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잘 모이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제 주위에 있는 다수의 분들도

생업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매달리고 계시다 보니까

학교에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많다.

어쩔 도리가 없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신 거 보니까

상당히 우리 교육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은하-맛벌이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죠.

이대성-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육 관계자분들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조기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조기 진로교육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조금 미온적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공적인 자료를 한번 보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학교 진로교육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학부모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로교육에

참석하는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교내, 교외에서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10%가 안 된다는 것이죠.

90%의 학부모님들이

참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인 것 같아요.

강은하-그래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여도는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네요.

이대성-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더불어서 진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에 대한 조사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중학생은 부모님이 당연히  
1순위였고요.

고등학생은 인터넷, 담임선생님,  
부모님 순으로

각각 1위, 2위, 3위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은하-중학생보다는  
조금 다양하네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제가 우리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봤는데요.

한 가지 예로 부산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에서 진로부장님과

잠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진로교육을 할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입니까?"라고

제가 여쭙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쭙봤더니  
낮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우리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또 진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수공을 하고 이해를 해 주는데

이 친구들이 방과 후에 집에  
또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그다음 날 학교에 오면  
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좀 따를 수 없을 것 같다.

강은하-아, 왜요?

이대성-부모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선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겪고 계시는

가장 힘든 점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강은하-사실 좀 박자를 잘 맞춰서  
진행하기가 많이 어렵네요.

부모님이 자녀의 진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선생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대성-그렇습니다.  
항상 강조를 해왔지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자녀 진로교육에 있어서의  
학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부모님들이 행사를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작 우리 부모님들은 바빠서  
생업 때문에 학교에 오시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진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 진로교육에 대해서 깊숙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진로교육의  
현실인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강은하-깊숙하게 관련지어서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제 학창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저는 좀 일찍 아나운서라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오긴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 저는  
뉴스를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첫째다 보니까

주로 부모님하고 저도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도 나중에

"제가 이렇게 MC를 맡아서  
진로지도에 대한 내용을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최근에 "너 키울 때 어려웠다.  
어디 가서 물어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고민을 최근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대성-그렇죠.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자녀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가장 큰  
우리 학부모님.

이분들께서 올바른 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앞으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교육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녀 진로를 지도하는 데  
이러한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은하-네, 앞으로 저도  
향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고

진로지도를 잘 하는  
그런 지식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학부모의 영향력이  
크긴 한데요.

아까 짚어주신 자료를 보면  
고등학생들은 인터넷에도

또 학교 선생님에게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대성-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로 관련 정보를 얻는 루트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대목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에 부모님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인터넷

이런 채널을 통해서  
진로정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얻는다는 비율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학교 선생님  
그다음이 부모님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우리가 보았을 때

중학생은 부모의 조언이나  
학교의 진로교육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진로정보를  
얻고 있는 반면에

고등학생들은  
취업포털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또는 일부 적극적으로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이것이 활성화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진로탐색의 의지를 살렸던

학교 진로교육의 활성화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은하-사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부모님의 영향이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대성-맞습니다.

강은하-살펴보니까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녀 진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한 조사인데

부모님이 1위인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셔서 잘 알겠는데요.

2위가 없음. 3, 4위는 친구, 선생님이렇게 나왔습니다.

없음이 있네요, 선생님?

이대성-그렇죠, 이 없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초·중·고등학교 생의 진로를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부모죠.

그런데 진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방금 지적을 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뭘 뜻하나 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계획의 필요성은 높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진로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우리 진로상담 선생님들이

한 분에서 두 분 정도가 배치가 되어 계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학생들 가르쳐야죠. 행정업무 해야 하죠.

그리고 교내외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진로상담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비춰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강은하-교사 1인당 맡고 있는  
학생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도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대성-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진로 관련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꼽힌 사람 가운데

아까 나왔던 친구  
또는 역사적인 인물

또는 학원 선생님 등도 의외로  
조금 많이 나왔는데요.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직업 탐색이라든지  
또는 개인상담

이런 프로그램 등이  
진로교육에

아주 적절히 제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이나 학교에서  
진로와 연관된

다양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서서히 미디어, 온라인 쪽으로  
채널을 변경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은하-다양한 사람들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진로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가장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해 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듣는 것도

상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지도에 대해서  
잘 알고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성-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현명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와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강은하-강의를 좀 듣다 보니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사실 부모가 좋은 부모로서  
자녀 진로를 계획하고

잘 이끌어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대성-아,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가 더 나은 진로를 갖기  
바라면서 진로를 지도하다 보면

부모님께서 은연중에 특정 직업을  
갖기를 바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은하-네, 많으시죠.

이대성-그렇죠. 그래서 자녀의  
소질과 적성과 이런 것들에 맞는

직업을 갖기를 누구나 바라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자녀에게 맞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진로를 가이드 하려면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강은하-제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 방향  
설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부모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두고

소질과 적성, 그리고 미래 전망,  
사회적인 안정.

'사'자 들어가는 직업 이런 거  
예전에 많이 얘기 나왔었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선호하는 직업과

우리 자녀들이  
희망하는 직업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있습니까?

이대성-그렇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 학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가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조사를 해봤어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1위가 교사, 2위는 의사

말씀하신 '사'자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 뒤로 경찰관, 법조인, 연구원  
이런 직업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 같아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도 조사가 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1위가 교사,  
그리고 2위는 연예인.

강은하-안 빠지네요.

이대성-그렇습니다. 연예인  
이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이 의사,  
경찰관, 법조인, 회사원이

상위권을 차지해온 것 같습니다.

강은하-사실 학부모랑 학생 모두  
선호하는 직업 1위가 교사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대성-시대 상황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은하-네, 맞습니다.

이대성-이제 국내 고용상황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학생과 학부모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얻어지는  
직업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직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의사나 법조인, 경찰관 등  
전문직으로 직업을 선호해서

이러한 상황을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은하-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도 나왔었잖아요.

이대성-네,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보면

이 부분도 트렌디 한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

학생이 선호하는 직업에서  
연예인, 조리사

또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또는 프로그래머

그리고 만화가 등이 순위에  
올라온 점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시대적인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세월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강은하-그렇죠.

이대성-그래서 이제  
직업 선택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끼라든지 자신의 재능,  
관심 분야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은하-지금 희망하는  
직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짚어보다 보니까

이런 직업이 적성과 소질에  
잘 맞는지도 살펴기 위해서는

면담이나 다양한 검사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대성-네.

강은하-오늘 또 하나를  
배우게 되네요.

인생을 먼저 살아온 선배로서

부모라는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진로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으로

부모를 1위로 꼽는다는 점에서  
아마 화면 건너편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책임감을 2배, 3배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대성-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안정된 직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직업이 확실히 더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도 조금  
염두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진로진학 상담과 함께

우리 진로정보도 한 축에서  
좀 챙겨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즐거움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평생 직업을 찾는데  
뭔가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강은하-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유명한 말이 생각나는데요.

"하고자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이 두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리 전망이 밝은 또 좋은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적성과 소질에  
잘 맞지 않다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반대 상황의 직업일지라도

본인이 즐거움을 느끼고  
열정을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게 바로  
최고의 직업이 되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대성-이제 진로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강은하-네, 강의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저도 저절로 막 유명한 말이  
같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도 딱 차게, 알차게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